

미국은 북침핵전쟁도발책동에 피눈이 되어 날뛰는 조선민족이 철천지원수

도발자들의 통할수 없는 《방어》라령

며칠전 남조선의 (MBC)방송은 미 핵추진잠수함 《블루부스》호가 3월 3일 부산에 입항한다고 보도하였다. 방송에 의하면 《블루부스》호외에 1만 8000t급의 《블루릿지》호도 함께 입항하며 이 함선들은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합동군사연습에 참가하게 된다. 미제침략군의 대형함선들이 남조선에 기여들어 북침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하는것은 스치기날수 없는 사태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은 지난 2월 24일부터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개시하였다.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군의 수많은 병력과 방대한 지상, 해상, 공중타격수단들, 첨단정찰장비들이 투입되어 전쟁연습에서는 아가기동원, 공중, 해상특수작전훈련 등 20여가지의 각종 합동훈련들이 벌어지게 된다.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명백히 북침핵전쟁을 가상한 도발적인 불량군사동이다. 미핵추진잠수함과 미제 7함대 기함 《블루릿지》호의 이번 전쟁연습참가는 그것을 입증해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금도 여전히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에 대해 상투적수단대로 그 무슨 《방어적성격의 훈련》이라고 우기고있다. 한편 핵항공모함과 전략핵잠수함 《백신전력》은 참가하지 않는다. 《그런데 전쟁연습과도 하지 않겠어!》라느니 부끄러우며 내외의 규탄여론을 모면해보려고 하고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성격을 감할수 없다.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의 초점은 북침핵전쟁공작기대에 맞게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군 부대들의 연합 및 합동작전능력을 높이며 전반적인 전쟁준비를 최종완성하는데 집중되고있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에는 미국과 남조선이 지난해 3월에 서명한 《공동국지도발

대비계획》이 적용되었다. 쌍방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면 그것을 구실로 남조선군에 물론 미국본토와 태평양방면의 미제침략군을 총발동시켜 북침전쟁을 감행한다는것이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의 골자이다. 이 계획에는 국부전쟁을 전면전쟁으로 확대하기까지의 모든 작전내용들과 여기에 투입되는 군사적력량과 작전수단들 그리고 여러가지 전쟁도발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있다. 이런 위험천만한 전쟁각본에 따라 감행되는 대규모불장난소동이 어떻게 방어훈련일수 있겠는가.

이번 합동군사연습에서 전형적인 공격적전 상투훈련이 최대규모로 벌어지게 되는 사실을 놓고서도 그의 침략적성격을 잘 알수 있다. 호전광들은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약명동미 33해병기동군까지 투입하여 1989년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이후 최대규모의 연합합동훈련을 벌려라 하면서 그 목적이 그 누구의 《갑변사태》에 대비한 《북의 핵시설장악과 평양정령》에 있다는것을 내놓고도 떠들었다. 이에 대해 남조선 각계는 《북의 심장부를 겨냥한 선제적인 공격연습》, 《침략적인 전쟁연습》 등으로 강하게 규탄하고있다.

더우기 엄중하였던 호전광들이 이번 훈련에 처음으로 《맞출형적전력》이라는 것을 적용하여 그 실용성을 검증하려 하는 사실이다. 《맞출형적전력》은 그 누구의 핵위협상황을 위협한다. 사용된 반작용, 사용단계 등으로 구분하고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군사수단을 총발동하여 우리를 선제타격한다는 매우 위험한 전쟁각본이다. 호전광들은 《맞출형적전력》에 핵무기의 《사용된반작용》과 판단되는 경우 선제타격을 가할수 있다는 북한을 쏘아박음으로써 임의의 시각에 북침핵전쟁공작에 나설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에서는 《북의 핵과 생화학무기》에 대응한

다는 미명하에 남조선장검 미제침략군 2사단의 23화력대대가 핵실험할을 수행하게 된다. 우리에게 대한 선제공격과 전면전쟁의 성격을 명백히 드러내고있는 이런 침략전쟁연습에 감히 《방어》의 외피를 씌우는데야말로 파렴치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북남사이의 대결상태해소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주게 된다. 북로빈자처럼 미국은 북남관계개선문제가 일정에 오르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그 무슨 《동맹의 준비태세강화를 위한 필수적연습》이니 뭐니 하며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예정대로 진행할것이라고 떠들었다. 특히 미국은 지난 2월초에 판문점에서 북남사이의 휴전지 가축, 친척상봉과 관련한 협의가 진행되고 그 시각 《B-52》핵전략폭격기를 조선서해의 적도상공에 투입하여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핵타격연습을 감행하였다. 그 이후에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내외의 한결같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끝내 북침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해나갔다. 현실은 미국이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 조선반도의 평화를 바라고 있으며 남조선과의 합동군사연습을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키고 북남관계개선을 방해하기 위한 기본수단인 것이다.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그 누구의 《위협과 도발》에 대처한 《연례적인 방어훈련》이 아니라 조선반도의 정세를 최악으로 긴장시키고자 한 우를 군사적으로 엄중히 위협하는 동시에 북남관계개선을 저지하려는 분위기를 감추고 북침핵전쟁을 도발하려는 공명적인 침략행위이다.

미국은 북과 남이 힘을 합쳐 신뢰와 단합을 이룩하면서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것을 달가워하지 않고있다. 북남

관계개선으로 남조선과의 《북핵공조》에 균열이 생길수 있다고 타산하고있는 미국은 남조선당국을 부추겨 반공화국과 집합살상공격을 한사코 실현하기 위해 주요계마다 대규모의 합동군사연습을 끊임없이 벌리는것으로 북남관계개선에 어떻게 하나 제동을 걸려 하고있다. 또한 심각한 재정난으로 준비작감압력에 시달리고있는 미국은 우리를 겨냥한 군사적대비태세강화의 파충한 재정적부담을 남조선당국에 들의우기 위해서도 그 누구의 《위협》과 《도발》에 대해 요란히 떠들며 북침합동군사연습의 지속적인 강행을 꾀하고있다.

북남관계의 운명과 우리 민족의 생존에 대해서는 아랑곳없이 범죄적인 대조진배전략의 실현에만 매달리면서 조선반도에 항시적인 핵전쟁위협을 조성하고 조국통일위업의 전진에 커다란 장애를 가로지르는 미국의 침략적이며 전적인 정치는 다시금 날뛰어 드러나고 있다.

미국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방해하면서 북침핵전쟁도발책동에 피눈이 되어 날뛰는 조선민족의 철천지원수이다.

지금이야말로 해내외의 온 겨레가 미국의 침략적인 정세를 똑바로 꿰뚫어보고 우리 민족끼리의 링장에서 자기의 운명문제, 북남관계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때이다.

미국은 《방어훈련》이니 뭐니 하며 오그광수를 쓸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요구대로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족에게 핵전쟁의 재난을 들의우려고 발광하는 외세의 무분별한 북침핵전쟁연습행동을 준렬히 규탄단죄하는 전민족적투쟁을 보다 힘차게 벌려나가야 할 것이다.

남조선에서 미국이 핵추진잠수함 비롯한 침략함선들을 들이밀어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는것을 준렬히 단죄규탄하는 각계의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MBC》방송, 《아시아경제》를 비롯한 남조선언론보도들에 의하면 지난 3일 오전 핵추진잠수함 《블루부스》호와 미제 7함대의 기함인 《블루릿지》호가 남조선의 부산항에 기여들었다. 호전광들은 이 함선들이 합동군사연습에 참가하여 해상총합동훈련 등을 벌린다는것을 공포하였다. 하와이의 남조선간담회 《블루부스》호는 미태평양함대 잠수함전단소속의 7000t급대형잠수함으로서 《토마호크》순함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핵공격장비들을 적재하고있다 한다. 미제호전광들은 핵추진잠수함 《블루부스》호가 《북의 핵시설장악을 타격》할수 있다고 내놓고 떠들었다. 이런 위험한 침략행위와 함께 미제 7함대의 기함이며 해상특전잠수함 《블루릿지》호가 기여들것으로 하여 사태는 더욱 엄중했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 각계는 미국의 호전적인 망동을 한목소리로 규탄하고있다.

남조선언론 《오마이뉴스》는 북남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미국 핵추진잠수함입항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오마이뉴스》는 글에서 미국함선들의 부산항입항을 반대하는 경남진

보련함과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의 투쟁소식을 상세히 전하였다. 그에 의하면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미제침략선들의 해상총합동훈련을 북남관계를 파괴하는 무모한 행위로 단죄하였다. 기자회견참가자들은 북남사이의 휴전지 가축, 친척상봉과 고위급 접촉 등으로 조심스럽게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시기에 미국이 북을 반대하는 대규모적인 침략전쟁연습을 강행하는것으로도 모자라 핵추진잠수함을 비롯한 전략무기까지 동원하여 합동군사연습의 적대적이며 도발적인 성격을 강화함으로써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상태를 극도로 고조시키고있다고 폭로하였다.

기자회견에서 경남진보련함과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올해의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에 핵전략수단들이 투입되지 않을것이며 레논에 비해 연습의 규모가 줄어들었다고 주장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바라는 각계 민중은 올해의 합동군사연습이 레논보다 오히려 더욱 공격적이며 적대적인 성격이 강화된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체들은 우여곡절 끝에 휴전지 가축, 친척상봉이 진행되었지만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유지하고 더욱 고조시키기 위해서도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할것

을 요구하였다.

이 단체들뿐이 아니다. 지금 남조선도처에서 각계 단체들은 남조선당국과 미국이 북남관계개선을 조급이라도 바란다면 어떻게 열린 대화국면을 대결국면으로 되돌릴수 있는 도발적이며 적대적성격의 북침합동군사연습을 즉각 중단하고 남조선에 반입된 각종 공격무기들을 당장 철수시킬것을 주장하며 반침평화투쟁의 불결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남조선의 인터넷신문 《통일뉴스》가 전한데 의하면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은 4일 서울의 미국대사관주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제침략군 함선들의 부산입항을 규탄하였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미해군의 침략함선들이 부산항에 입항한데 대해 언급하고 남조선에 핵전략무기들을 투입하여 군사적긴장을 고조시키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미국이 대화를 파괴하는 전쟁연습을 즉시 중지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가라앉는 모든 군사적행동을 철거치우며 평화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흐려놓으면서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불결을 기여어 터지려고 발광하는 미국의 호전적 망동을 우리 민족은 절대로 용납할수 없으며 민족단합의 강력한 함의로 단호히 첫부서 버릴것이다.

본사기자 리효진

도발적이며 위험천만한 합동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

남조선의 인터넷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2월 24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과 진보련대, 참어련대를 비롯한 39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의 중지과 평화협정의 체결을 주장하여 서울의 미국대사관주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출

연 지 가축, 친척상봉이 진행되는 때에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는것은 도발적이며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규탄하였다.

《맞출형적전력》과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이 처음으로 적용되고 대규모연합합동훈련이 실시되는 이번 군사연습은 조선반도핵전쟁의 위험

성을 고조시키고있다고 단죄하였다.

북을 군사적으로 압살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합동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할것을 미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미국이 대조선전대시정책을 철회하고 평화협정체결에 나서야 한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미제원수들에 대한 적개심 하늘땅을 진감한다

침략선들을 모조리 수장시키라

말씀하다 《대화》와 《평화》를 운운하는 미국이 지금 남조선에서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으면서 감히 우리에게 덤벼들려고 들면 각고 되여오는 현탄의 대오가 지금 원수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적개심으로 가슴끓이우고있다.

우리 인민이 남부럽지 않게 잘살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릴 그날을 앞당겨주기 위해 우리 들겨대원들모두가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다. 이런 때에 미제 호전광들은 창조와 비약으로 들

끓는 내 조국땅에 핵예탄을 들의우려고 발광하고있으니 이런 천하의 악한들을 어떻게 그냥 둘수 있겠는가.

우리 들겨대원들은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명명판 내리신대인 이몸이 그대로 무서운 위협이 되고 어찌가 되어 미제 침략선들이 다시는 내 조국의 푸른 바다에 기여들지 못하게 모조리 수장시켜버리고야말것이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 인민봉사총괄격대 정치일군 한경수

어 그 누구를 위협하려드니 얼마나 절없는자들인가. 미국은 상대가 무적의 핵억제력을 가진 불패의 강국이라는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즉 소란 수장시키라.

우리는 미제의 전쟁판관을 볼 수 없고 제 죽음을 모르고 정신 없이 날아드는 부나비들의 망동으로밖에 여기가 않는다. 원래 쫓기는 개가 요란하게 짖어대고 강경자들이 흰소리를 더 달 치는 법이다. 남조선에 핵추진잠수함을 들이밀며 기고난장해 날뛰는 미제 호전광들의 망동은 사실 악동들의 꿍꿍이로 미약하는 우리 공화국의 용용한 기상과 장엄한 전진앞에 당황장조한 비겁자들의 단말마적발악에 불과하다.

미제는 용용한 기상과 장엄한 전진앞에 당황장조한 비겁자들의 단말마적발악에 불과하다.

을 피우지 말고 개꿈에서 깨어나 제 집으로 돌아가는것이 상책일것이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 실장 리영은

《볼리모》호의 비극을 잊지 말라

우리는 미제의 전쟁판관을 볼 수 없고 제 죽음을 모르고 정신 없이 날아드는 부나비들의 망동으로밖에 여기가 않는다. 원래 쫓기는 개가 요란하게 짖어대고 강경자들이 흰소리를 더 달 치는 법이다. 남조선에 핵추진잠수함을 들이밀며 기고난장해 날뛰는 미제 호전광들의 망동은 사실 악동들의 꿍꿍이로 미약하는 우리 공화국의 용용한 기상과 장엄한 전진앞에 당황장조한 비겁자들의 단말마적발악에 불과하다.

미제는 용용한 기상과 장엄한 전진앞에 당황장조한 비겁자들의 단말마적발악에 불과하다.

미국은 조선반도의 분열과 정세악화의 장본인

브라질정계 인사의 글

브라질자유조국당 부위원장 로지니오 캄보스 사신은 《오라노 보보》 2월 25일부에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는 글을 발표하였다.

필자는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도발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끝낼때 별려놓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는 침략전쟁연습을 중지할것을 미국과 남조선당국에 제의

하였다.

조선은 이 합동군사연습을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북남관계개선에 장애를 조성하는 엄청난 군사적도발로 간주하고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저들이 벌리는 군사연습의 도발적이며 침략적인 성격을 감추기 위해 《년례적》이며 《방어적》인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미국의 말장난일뿐이다.

조선의 분열은 미국의 세계

적분열의 산물이다.

북과 남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미국은 아시아에 대한 지배전략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조선에 저들의 무력을 계속 끌어들이고있다.

남조선에서 미군무력을 철수시키고 미국의 지배와 예측을 끝낼때 북남사이의 긴장상태가 완화되고 조선의 평화적이며 자주적인 통일이 이룩될 것이다.

미국은 조선반도의 분열과 정세악화의 장본인이다.

【조선중앙통신】

개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미제가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에 핵추진잠수함이나 뭐니 하는것을 천둥소리에 놀라 소란스럽게 짖어대며 이리저리 들끓이는 동태계들을 보는데도 하부강자이 밤 무서운줄 모으며 날치는 호전광들에게 백두산혁명강군의 단호한 본래를 보여주었다.

멀리 거슬러볼라갈것도 없다. 지난해 봄 남조선에 핵항공모함단은 물론 핵전략폭격기

까지 투입하여 우리를 어찌보려고 헤메버다며 백두명장의 불호령에 흔비백산하여 황금히 꼬리를 사리지 않았는가. 그때 미국은 원수들이 칼을 빼들면 장전으로 내리치고 총을 내리면 대포로 쏘지않고 핵으로 위협한다. 그보다 더 위험한 핵타격수단으로 맞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무자비한 대응방식을 똑똑히 보아들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정신이 덜 들

까지 투입하여 우리를 어찌보려고 헤메버다며 백두명장의 불호령에 흔비백산하여 황금히 꼬리를 사리지 않았는가. 그때 미국은 원수들이 칼을 빼들면 장전으로 내리치고 총을 내리면 대포로 쏘지않고 핵으로 위협한다. 그보다 더 위험한 핵타격수단으로 맞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무자비한 대응방식을 똑똑히 보아들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정신이 덜 들

한다

전쟁연습에 광분한것이 어디 한두번이였는가.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적들의 망동을 천둥소리에 놀라 소란스럽게 짖어대며 이리저리 들끓이는 동태계들을 보는데도 하부강자이 밤 무서운줄 모으며 날치는 호전광들에게 백두산혁명강군의 단호한 본래를 보여주었다.

멀리 거슬러볼라갈것도 없다. 지난해 봄 남조선에 핵항공모함단은 물론 핵전략폭격기

교파간 대립의 위험성에 경고

이런대통령 하얀 루하니가 2월 25일 한 담화석상에서 교파간 대립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이슬람교도들의 단결을 호소하였다.

그는 현시기 적대세력들이 이슬람교도에게 분열을 조성하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 조건에서 단결은 이슬람교도들앞에 나서는 가장 중

요한 과업으로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견해와 이해의 차이는 있을수 있지만 교파간 대립은 사회를 파괴로 몰아넣을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씩고 병든 미국의 선거제도의 진면모

《미국사회를 파괴에 비교한다면 같은 이마 다 썩고 속안의 씨가 짙어들어가고있는 형편이라고 할수 있다.》

연예인이 미국의 어느 한 출판물에 실린 글이다.

미국선거제도의 반동성과 반인성, 부패상을 개탄하여 쓴 글인데 정확히 표현했다고는 할수 없다.

미국의 현실을 굳이 파괴에 비교해본다면 그것은 이미 썩을 대로 썩어 악취를 풍기고있다.

반동적인 선거제도

2012년 11월 미국에서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가 있었다.

당시 선거과정을 지켜본 로씨야의 감시단은 미국의 선거제도가 보기 드문것이며 임의의 국제기구도 이 나라에서 진행한 선거를 비평적일것으로 인정할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응답한 평가이다.

미국의 선거제도의 내막을 파헤쳐본것은 그것이 절대수준으로 대중의 정치적권리와 의사를 배척하고 지배계급의 이익실현의 수단으로 되고있다는것을 똑똑히 알수 있다.

미국의 선거제도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한 비밀투표와 같은 선거의 근본원칙들을 배척하고있다. 미국의 연방 및 주헌법들은 사람들의 선거권을 제한하고있다. 그 헌

법들은 재산유무, 지식정도, 거주년한 등에 한도를 설정하여 일반국민들이 선거에 자유롭게 참가할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있다.

일지러를 찾아 떠돌아다니거나 집없이 한곳에 나앉아있는 사람들, 하루벌임이도 하기 힘든 빈곤층이나 돈이 없어 배우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은 선거 때마다 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선거제명부들에 죽은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있고 수백만명의 선거자들이 여러 주들의 선거명부들에 동시에 등록되는 하한 등 특등 선거자들중 많은 사람들의 자료가 완전치 틀러 그들이 선거표를 받을수 없게 하고있다.

미국에서 대통령선거는 선거자들이 먼저 자기 주의 선거인들을 선출하고 그들로 하여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있다.

보다싶이 미국선거제도는 직접적인 방식이 존재하지 않는 가장 비민주주의적인 제도이다.

사실은 이 나라 선거제도가 얼마나 기만적이고 반인민적인것인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돈으로 사는 대통령관두

미국에서는 돈을 제일 많이 뿌리는자가 대통령관두를 쥐어준다. 이것은 력대 미국식(민주주의)의 《전통》으로 되고있다.

1960년 대통령선거때 케네디는 91만 200000의 득표를 뿌렸으며 1964년 대통령선거때 존슨은 1100만 USS를 그리고 1968년과 1972년에 이은 두차례의 선거에서 닉슨은 6000만USS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랑칭함으로써 대통령자리를 차지하였다.

케건은 1980년 대통령에 비선거당시 자기 당의 후보들을 물리치는데 막대한 돈을 썼으며 카터와의 최종경쟁에서는 2억 USS의 돈을 부렸다.

2008년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후보자로 나선 오바마는 선거자금으로 6억 4000만 USS를 뿌림으로써 최고기록을 돌파하였다.

2012년 대통령선거때에는 10억USS정도를 소비하였다. 새로운 선거기록을 세운 그는 대통령자리를 또다시 차지하였다.

누가 얼마나 많은 돈을 뿌리는가에 따라 대통령이 결정되는 미국사회의 현실을 두고 어느 한 출판물은 《백악관으로 가는 길은 오직 부유한자들에게만 열려있을 수 있다.》라고 폭로하였다.

후보자들의 개싸움

미국에서 선거마다 보게 되는 비특이극이다.

그것이 바로 후보자들사이에

사실적인 문제를 정치적문제로 확대시키고 서로 인격모욕을 하며 물고 뜯는 싸움이다.

현 집권자가 재선을 노리고 공화당의 대통령후보 롬니에 대한 공격을 놓고 치열하게 대결하여 만사람의 조소와 비난을 자아냈것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문제의 발단은 롬니인가의 지난 1983년의 리행때 있었던 일이었다.

당시 롬니는 자동차를 타고가는 약 12시간동안에 안완용을 바꾸기에 넣고 리행했었는데 그중에서 롬니를 하차 회발유 공급소에 틀러 호소로 개한테물을 쓰았다고 한다.

이 소식이 2012년의 대통령선거기간에 공개되자 안완용에 호가들은 함대라고 비난하면서 《롬니를 반대하는 것들》이라는 단체까지 나오고 뉴욕에서 시위를 벌였다. 롬니의 차가 TV방송에 나타나 《당시 개는 매우 좋아하였다.》고 변명을 늘어놓자 롬니는 불쾌하게 더욱 높아졌다.

이때라고 생각한 집권자는 안완용과 함께 차에 타는 자기의 사진을 인터넷사이트에 올리고 거기에 《개를 사랑하는 주인은 이렇게 이동한다.》라는 소개글까지 쳐 달아놓는 등 자기의 인기를 올리려고 시도

미국가안정보장국의 비렬한 정탐행위 가 또다시 폭로되어 물의가 일어나고있다.

도이쉴랜드신문 《헬트 암 존라그》 2월 23일부는 미국가안

미국의 정탐행위 계속 폭로

정보장국이 수상 메르켈의 휴대용전화도청을 중지한 후에도 정계와 세계의 고위인물 320명의

이것은 농산품(9.2%), 자동차(7.2%)무역역을 훨씬 통과하는것으로 된다.

발전도상나라들에서 통신기술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것이 이 분야의 무역을 증대시킨 주요추동력으로 되었다고 한다.

방사능방출로 소동

미국의 뉴멕시코주에 있는 한 핵시설부근에서 최근 방사능이 방출된것이 확인되어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있다.

AP통신은 핵시설의 지하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된것과 관련하여 현지연구기관이 방사능검사를 진행한 결과 시설로부터 약 800m 떨어진 지상에 소위 방사선이 집중되었다고 전하였다.

그 수치는 지금까지 검출된중 가장 높았다 한다. 직원들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조사봉을 벌리는 등 소동이 일어났다.

【조선중앙통신】



중국에서 철도 건설